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 (0342)707-5722~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263-3598

제5권 제3호 통권45호

3

1999

- 회장 취임사 -

##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을

한국계육협회가 3년전에 출범한 이후 이제 두번째 회기를 맞게됨을 본회 회원들과 관련업계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95년도에 가금처리협회내에 계열화협의회로 출범하여 발전적으로 한국계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실공히 국내 계육산업을 주도해 온 본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2천년을 향한 도약의 시기에 다시 본회 회장직을 재임하게 되었음을 지면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업계의 꾸준한 협조에 힘입어 닭고기 산업은 축산업 중에서도 으뜸가는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가운데에서 협력을 다하여 우리나라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회기에는 그동안 과도기에 전근대적인 닭고기 유통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히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현대적인 닭 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또한,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HACCP 제도의 도입, 도계검사의 선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닭고기의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등으로 수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공



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위생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협회에서 위생처리인증표시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또, 본회가 가장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닭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중전의 회원사 부담 원칙에서 진일보하여 생산자는 물론 닭고기 산업관련 모든업체(병아리, 사료, 비닐,약품, 기타 생산자재 공급업체)가 다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닭고기 산업의 발전은 우리 협회 회원사들만의 여망이 아닌 협력업체 모두의 바람입니다. 파이의 크기가 커져서 닭고기 시장이 확대됨으로 국내 닭고기 관련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닭고기 소비촉진 사업의 확대를 위한 관련업계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합니다. 최근 환율안정과 병아리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냉동 수입닭고기 물량이 확대되고 있어 염려가 됩니다.

지구촌시대 전세계 모든 닭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넘보고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고 세계속의 우리 닭고기 산업이 미래의 식품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회원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합니다.